2026_10 DATA TELLER NO.32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받는 정책은 ‘더 좋은 온통대전 2.0’

민선 9기 정책 시민 선호도조사 분석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대전 시민들은 어떤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7%)이 대전에서의 삶에 만족▼ 한다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시민들이 다음 단계로 기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정책 분야와 핵심 공약을 살펴보고 2030세대와 중장년층• 이상 연령군의 차이도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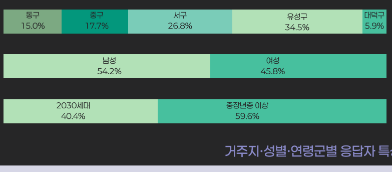
▼ 대전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4.12점을 기록함

• 40대 이상을 가리킴

조사개요

-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기관**: 대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 **-표집 방법**: 편의표집
- **-조사 기간**: 2026.8.28. ~ 2026.9.8.
- **-유효 표본**: 727명✳
- **-분석 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텍스트마이닝(TF-IDF 분석, N-Gram 분석 보조 병행)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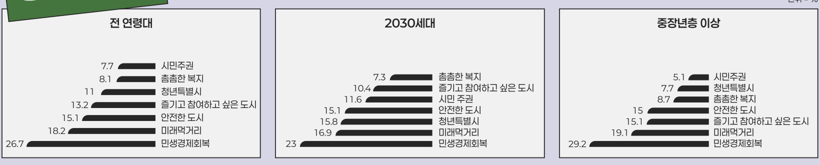
거주지·성별·연령군별 응답자 특성

✦ 본 조사는 비례표집이 아닌 편의표집(대전의 성별·연령·거주지별 인구 분포 비율과 차이가 있음)이므로 대전 시민 전체로의 일반화는 불가하며, 응답자 집단 내 경향으로만 해석해야 함

✳ 유효 표본 선정 기준: 전체 응답자 1,631명 중 ① 대전 비거주자, ② 응답 시간 1분 20초 미만(파일럿 테스트 기준), ③ 중복·동일 패턴 응답(전화번호 중복 응답은 최초 응답만 인정), ④ 무성의 응답을 제외하여 72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함

향후 4년간 대전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

단위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 로는 ‘**민생경제회복(26.7%)**’, ‘**미래먹거리(18.2%)**’, ‘**안전한 도시(15.1%)**’ 순으로 꼽혔다. 연령군 별로는 2030세대와 중장년층 이상 모두 1·2위는 같았으나, 3위는 2030세대 ‘청년특별시(15.8%)’, 중장년층 이상 ‘즐기고 참여하고 싶은 도시(15.1%)’로 달랐다. 청년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세대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책 분야 설명

- **-민생경제회복**: 지역화폐,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 로컬푸드, 중장년 연금
- **-미래먹거리**: AI·첨단산업 거점 조성, 기업 육성·유치, 인재 양성, 도시 기반 조성
- **-안전한 도시**: 에너지·탄소중립, 교통·도시, 안전(재난·응급의료)
- **-청년특별시**: 청년 일자리·창업, 청년주택, 청년의회, 문화바우처
- **-즐기고 참여하고 싶은 도시**: 생활 문화권 조성, 예술인 지원, 축제·야간관광, 생활체육·스포츠산업

•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고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한 뒤, 전체 점수 대비 비중(%)으로 환산함

상위 3개 분야별 세부 공약 선호도

1~3위로 나타난 ‘**민생경제회복**’, ‘**미래먹거리**’, ‘**안전한 도시**’에 한해 분야별 선호하는 세부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안전한 도시’ 분야는 ‘에너지·탄소중립’, ‘교통·도시’, ‘안전’ 영역의 공약이 섞여 있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 공약 선호도를 조사했다. 정책 분야 1~3순위 중 해당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 대상, 1인 2개 공약 선택(분야별 응답자 수 대비 비율, 분야별 합계 200%). 분야별 공약 수가 상이하여 분야 간 직접 비교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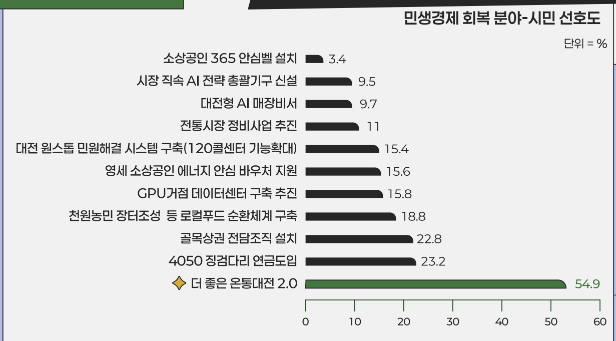
1위 민생경제회복

응답자 과반이 꼽은 더 좋은 온통대전 2.0

‘민생경제회복(474명 응답)’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 중 54.9%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공약으로 ‘더 좋은 온통대전 2.0’을 꼽았다. ‘4050 징검다리 연금 도입(23.2%)’과 ‘골목상권 전담 조직 설치(22.8%)’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30% 이상 벌어져, ‘더 좋은 온통대전 2.0’에 대한 정책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시민 선호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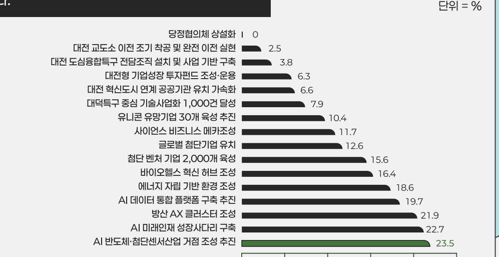
2위 미래먹거리

AI 관련 공약 상위권 차지

‘미래 먹거리(366명 응답)’ 분야에서는 ‘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추진(23.5%)’, ‘AI 미래인재 성장사다리 구축(22.7%)’, ‘방산 AX 클러스터 조성(21.9%)’이 근소한 차이로 1~3위를 차지했다. AI 관련 공약이 상위권을 모두 점유했으나, 16개 공약 중 1위가 23.5%에 그쳐 다른 분야에 비해 선호가 고르게 분산된 점이 특징이다.

미래먹거리 분야-시민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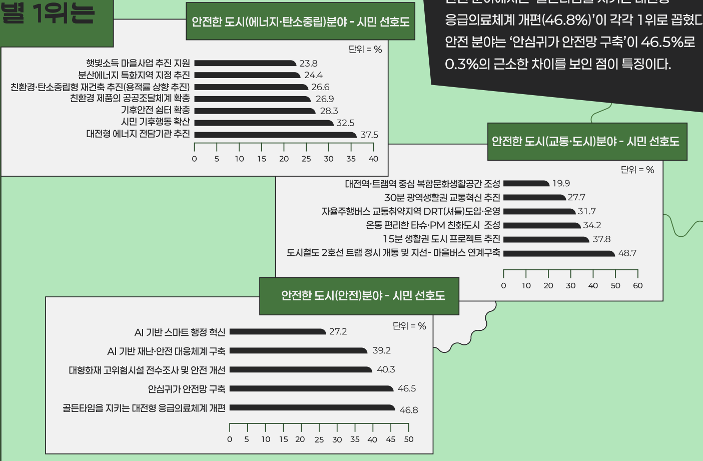
단위 = %



3위 안전한 도시

영역별 1위는 에너지 전담기관·트램 개통·응급의료

‘안전한 도시(357명 응답)’ 분야는 에너지·탄소중립, 교통·도시, 안전 영역이 섞여 있어, 3개로 분할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에너지·탄소 분야는 ‘대전형 에너지 전담기관 추진(37.5%)’, 교통·도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시 개통 및 지선-마을버스 연계 구축(48.7%)’, 안전 분야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46.8%)’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안전 분야는 ‘안심귀가 안전망 구축’이 46.5%로 0.3%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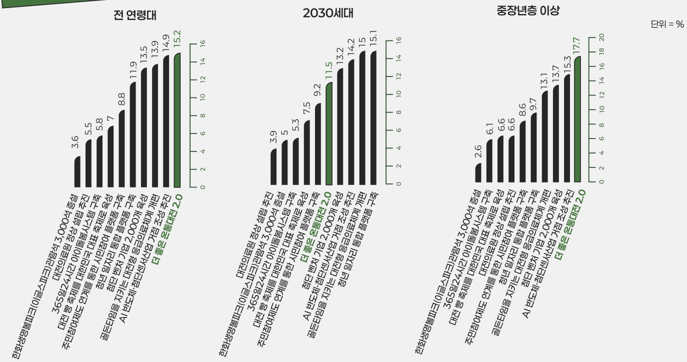


상위 3개 분야별 세부 공약 선호도

체계

더 좋은 온통대전 2.0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



대전시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의제로는 '더 좋은 온통대전 2.0'이 1위에 올랐고, '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추진'과 '골든타임을 지키는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2·3위를 차지했다. 세 개 공약은 앞서 살펴본 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와 일치했다.

한편 연령군별 핵심 공약 선호는 다소 달랐다. 2030세대는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골든타임을 지키는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 '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추진' 순으로 1~3위를 기록해 청년 관련 공약이 1위에 올랐다. 중장년층 이상은 1·2위가 전체 결과와 같았으나, 3위는 '첨단 벤처 기업 2,000개 육성'이 꼽혀 차이를 보였다.ǀ

ǀ 10대 핵심 공약 중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고, 1순위 3점·2순위 2점·3순위 1점을 합산해 전체 점수 대비 비중(%)으로 환산함

시민 자유 의견 키워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에서는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을까?
유효한 주관식 응답 총 619건을 대상으로 핵심어(TF-IDF 분석)와 연속 출현 단어(N-Gram 분석)를 도출했다.

핵심어로 본 시민 의견

시민 청년 도시
지역 복지 안전 교통 사업 트램 환경
확대 미래 추진 일자리 개선
문화 기업 활성 확충 지원

단어 조합으로 본 시민 의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배차간격 트램 공사
정책 사업 과학 도시 버스 노선 산업 육성 생활 밀착
첨단 산업 체육시설 미래 먹거리 첨단 사업 과학 기술
청년주택 의료서비스 시민 참여 문화 예술 외곽지역
경제 활성 돌봄 서비스

TF-IDF 분석 결과 핵심어 상위 10개로는 '시민(25.2601)', '청년(25.1441)', '도시(24.5928)', '일자리(22.3918)', '지역(20.4975)'이 포함되며, '트램', '안전', '기업', '환경', '생활'이 뒤를 잇는다.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N-Gram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본 결과 '기업×유치'가 가장 많고, '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가 뒤를 잇는다. '트램×공사', '배차×간격' 등 교통 관련 단어와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관련 표현도 상위권에 올랐다. 종합하면 시민 의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일자리·기업 유치, 교통, 미래산업 세 갈래로 압축된다.

대전연구원 **발행** 최진혁 | **기획** 주혜진 | **작성** 노민영 | **디자인** 이우현 | **발행일** 2026. 10. 30 | **발간물 자문** 노성민 문충만 윤설민 이정범 정광진